

# “지역 드론사업 이끄는 리더 되고 싶어요”



### 2021 으뜸인재 <19> 고흥산업고 남기호 군

#### 드론 제작·축구 등 대학서 실력 더 쌓아 특기 제대로 살릴 것 “전남 관광지 드론 이용 3D기법으로 촬영해 널리 알렸으면”

“대학에 가서 드론 실력을 더 쌓을 것이지, 아니면 드론 부사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가정 형편을 감안해 드론 동아리가 있는 전남도립대나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남남도립대에 원서를 내 최근 면접까지 봤습니다.”

남기호(18·고흥산업고 3년)군은 중학교 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본 드론 군집비행쇼에 반해 드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엔 드론을 구입할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완구용 레이싱 드론을 사고, 이를 조작·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해·조립해보며 스스로 드론을 배워나갔다.

“지금은 10대나 있어요. 4개는 제가 직접 조립한 것이고, 6개는 완제품을 샀죠. 으뜸인재

로 선정되면서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드론 교관자격증 시험준비와 촬영용 드론을 사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남군은 드론으로 하루를 보낸다.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드론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조작기술이나 조립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드론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자기 뜻대로 드론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흥군이 드론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드론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어 남군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다.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선배가 드론 특성화 고등학교인 고흥산업고를 추천했었어요. 드론 조종뿐만 아니라 드론 제작과 정비 등 체계적



으로 드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드론 대회 준비반과 드론 동아리에 가입해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 특기는 드론 레이싱, 드론축구, 드론제작입니다.”

회전속도가 더 빠른 모터를 장착해보거나 각도가 더 큰 프로펠러, 출력이 더 강한 배터리를 교체해 보는 방법으로 성능이 더 좋은 드론을 제작한 남군은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전국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해 우승했다.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탑에이스’라는 팀을 결성, 매주 토요일에는 충남 천안에 가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는 전력을 짜는 등 실전 같은 훈련을 소화해 결승에서 군인으로 이루어진 상대팀을 이긴 것이다. 또 교내 동아리인 3D 동아리에 가입한 후 지난 2019년 교육부 주관 ‘고졸성공취업대박

람회 동아리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가 생각해도 드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학과 수업을 마치고 매주 8시간 이상 드론을 만지고 있어요.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도 해보고 싶어 영상편집 프로그램도 공부하고 다양한 촬영기법을 배워 직접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다양한 공모전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고흥을 비롯한 전남 곳곳의 관광지를 드론을 이용해 3D 영상기법으로 촬영해 홍보하고 싶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무슨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남군은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드론쇼와 같은 영감을 주고 싶다. 지역의 드론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지금까지 드론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덕에 으뜸인재로 선정됐고요. 아버지(남길우), 어머니(김영미)가 너무 행복해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했습니다. 저를 으뜸인재로 만들어주신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i@kwangju.co.kr

## 전남대 안효성 교수

### 미국화학회 젊은 과학자 선정



전남대 안효성 석유화학소재공학과 교수가 미국화학회(ACS)의 고분자분과(PMSE)로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과학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젊은 과학자”(2021 ACS PMSE Future Faculty Scholar)는 고분자 재료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젊은 연구자 가운데 엄선되는데, 수상자들은

내년 3월 미국 샌디에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미국화학회 춘계 총회와 함께 열리는 심포지엄에 초대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안효성 교수는 고분자 기반의 복합재개발과 투과전자현미경 전자 단층 영상 기술 및 머신러닝기술을 융합해 기존 분석 기술로 파악하지 못했던 나노 수준의 구조데이터를 시각화하고, 3차원 구조를 정량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센서에 활용되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최근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진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분자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안효성 교수는 이같은 연구 과정에서 국제적인 연구논문 24편을 저명학술지인 Science Advances 등에 발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적십자, 양동·북개시장 상인회에 손소독제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소독제 2400개를 광주양동시장 상인회와 북개시장 상인회에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전남문화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사업공동 기획 협약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위성호)은 최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과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기초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 공동 기획·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 목포대 법학과 김신규 교수

### 전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선출



목포대학교 김신규 법학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전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 즉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신규 교수는 현재 전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코트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재) 20 팔도밥상	00 연모(재)	15 책, 기억록 3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생생정보 스페셜(재) 55 다류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아무튼 출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테마스페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변사 50 안방 우리말 2021(재) 55 더 나은 삶, 우리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라더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3]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카(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세계의 공영방송 가치+(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구해줘! 속소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우정뱅크의 인싸투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국가대표 와이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연모	0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5 육탄방의 문제아들	30 PD수첩	00 출천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100분토론	10 특집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독도의 날 기획 KBS컬작 다큐멘터리(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대한민국 무용대상(재)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병장고 나라, 코코몽	12:10 비타가 사람들	19:05 하트가 빛나는 순간
07:15 출동! 슈퍼맘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극한직업
07:45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당명 유지원	15:25 클래스 e	<날마다 축세, 맛있는 인생 -다함께 춤을, 콜롬비아>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00 마사와 곰	<마음이 이끄는 대로 2부 동지를 찾아서>
09:00 마법버스 타요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30 당당명 유지원(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3:05 건축탐구 - 집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음 9월 21일 丁未)

☎ 010-9790-8237



36년생 시기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48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60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2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84년생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96년생 호기가 돌아왔으니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5, 59



37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49년생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무리한다면 실패할 수다. 61년생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운이 깃들 것이다. 73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하겠다. 85년생 외곽에서 걸출 수 있다. 97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1, 98



38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50년생 평상시대로만 해 나간다면 결과가 무난할 것이다. 62년생 지나 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74년생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니 명심하라. 86년생 경험을 되살리면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98년생 일일이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0, 83



39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51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겠다. 63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이다. 75년생 면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87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으니라. 99년생 문제점이 보이니 잘 찾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3, 63



40년생 파격적인 국제시나리오. 52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64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76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88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주대를 갖고 밀어붙여라. 00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해졌다. 행운의 숫자 : 45, 55



41년생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이익 앞에서 참예한 대담을 하게 된다. 65년생 생각을 달리한다면 새로운 보물이 보인다. 77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89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01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 52



42년생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자극이 보인다. 54년생 밤심하다가는 순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66년생 의욕이 앞서더라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78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90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02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8, 79



43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 될 뻔하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55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민없이 행해 보라. 67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79년생 유연한 자세로 임함이 백 번 나을 것이다. 91년생 현대에서 벗어나고 봐야 한다. 03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3, 68



32년생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지혜롭다. 44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56년생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68년생 지난날의 노고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겠다. 80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92년생 결과는 볼 게 보듯 뻔하다. 행운의 숫자 : 48, 88



33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45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57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69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긴요하다. 81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93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3, 65



34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46년생 한계를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58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70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82년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94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라. 행운의 숫자 : 30, 74



35년생 구상만 활발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47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라. 59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71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받도가 없다. 83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95년생 끝까지 가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1, 89